

광주 문화마을 조성위원회 6년 노력

담장마다 詩·그림 가득
일본서도 배우러 왔어요



광주시 북구 '시화(詩畵) 문화마을 조성위원회'와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10명이 6일 북구 문화동 각하 글로빌 아파트 앞 담장에 모였다. 오른쪽부터 이재길 '맹기람 조형연구소 대표', 임춘원 문화동장, 안병국 문화동 주민자치 부위원장, 주민 정현숙씨, 김상근 위원장, 박병숙 문화동 주민자치위원, 주민 김용주·김숙희·임영란·박유나씨.

6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문화동 각하 글로빌 아파트 앞 담장에 '문화 오아시스'를 꾸미는 '시화(詩畵) 문화마을 조성위원회(위원장 김상근) 회원 1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10월 제작한 '담장에서 자연으로' 작품 등 시화 10점을 보고, 올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마을만들기’ 전국 1위 영예

회원은 김상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원 전남대 명예교수, 김중재 새재필 기념관 이사장, 문병란 시인, 박형보 '황당함' 편집장, 손광은 시인, 신용호 전 광주일보 주필, 이명규 광주대 도시계획과 교수, 이종일 남구문화원장, 전원범 광주교대 대학원장, 무형문화재 조성현 국악, 조수용 소설가, 한수남 희곡 작가, 정태성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재길 맹기람 조형연구소 대표, 백승만 미술학 박사 등 19명.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을 찾던 이들은 지난 2002년 3월 함께 모여 '문화의 반란'을 감행했다. 문화동 내 주택과 아파트 등에 시화와 문예 등을 제작,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자는 뜻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냉대와 부족한 돈 때문에 슬한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특히 시화 제작 때 드는 비용 20만~30만원 중 20~30%를 주민들에게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자 대부분 고개를 돌렸다.

회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품을 팔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북구청에서도 매년 1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줬다.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도 함께 뜻을 같이했다.

지난 2002년 북구 각하동 해풍 맨션 일대 주택가 31세대 담장과 벽면에 시화 34개(가로 80cm·세로 50cm 등)와 모자이크 34개(가로 90cm·세로 60cm 등)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어 ▲2004년 각하 주공아파트 담장·금호아파트 담장, 주택가 등 ▲2005년 각하 금호·주공아파트와 무등파크맨션 담장 ▲2006년 각하 글로빌 아파트 담장을 꾸렸다. 현재 북구 시화 169개와 모자이크 97개 등이 주택가와 아파트 담장과 벽면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각양각색.

“주택가에서 시화 판 부착 작업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먹을거리를 주는 바람에 작업시간이 지나질나 지연되기도 했어요. 처음엔 하기 싫다고 하던 주민이 '우리 집도 해달라'고 조를 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올 들어 일본 나고야대학을 비롯해, 순천·경기도 안산 등 전국 각 지자체장과 직원 등 146곳에서 3천124명이 다녀갔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또 올해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전국 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2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종행 기자 jwlee@kwangju.co.kr

휴가철 맞아 콘도 곳곳서 마찰

회원에게 “방없다” ...“힘있는 기관”엔 몰래 배정
회원권 사기 분양 등 분쟁 전년보다 2배 늘어

B콘도 회원인 장모(45·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황당함' 경험을 했다. 처가 식구들과 콘도에서 2박3일을 보내기 위해 7월 초 예약을 하려 했으나 “추첨이 벌써 끝났다”는 이유로 방을 배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미 휴가 날까지 잡은 장씨는 달리 방법이 없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콘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한때 회원에게도 “없다”던 객실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화가 난 장씨의 항의에 콘도 측은 “갑자기 예약을 포기한 사람이 생기면 대기순번대로 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 예약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회원권으로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콘도 객실이 휴가철마다 여유가 없는 것은 화사 추이 힘 있는 기관이나 관공서, 회사 내 고위층 등의 갑작스런 요청에 대비해 상당부분을 예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틈을 타고 회원권을 싸게 분양



광주 '광산구 근로자 노인종합복지센터'(관장 공수자)는 6일 오전 11시~밤 9시까지 센터 내에서 '사랑 나눠주기 희망 찾아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판매한 의류·생필품·음식 등 수익금은 전액 불우 노인과 근로자 돕기에 사용된다.

노인·근로자 돕기 사랑의 바자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 민원은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에 비해 무려 181.3%(29건)나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중학생 날치기 4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

광주 북부경찰청은 6일 길을 가던 70대 노인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광주 C중 김모(14)군 등 4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3시15분께 광주 서구 문흥동 I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강모(여·78·광주시 북구 문흥동)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학교 동창생인 이들 끝없는 내부시찰을 갖겠다는 30분간의 전화 설명을 들은 후 최씨는 79만원을 주고 결재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최근 10여 일 동안 7건 이상의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미제상태로 남아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비오는 주말 차차 흐려져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7월 7일 (음 5월 23일) ◆전국날씨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21~27℃
대전	흐리고 비	21~25℃
충청	흐리고 비	20~24℃
경상	흐리고 비	20~25℃
전라	차차 흐려짐	21~28℃
제주	흐리고 비	20~25℃
서울	흐리고 비	20~25℃
부산	차차 흐려짐	21~24℃
대구	차차 흐려짐	21~24℃
인천	구름 많음	21~28℃
울산	구름 많음	20~29℃
목포	흐리고 비	19~23℃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6:47 썰물 < 12:12
여수 밀물 < 01:27 썰물 < 19:50

▲해돋이 05:24 ▲해질 19:50 ▲달돋이 23:56 ▲달지기 12:10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1/28	21/26	22/26	22/28	21/29	21/28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안서 백제 고분군 발견
산성과 함께...대부분 도굴·훼손

신안군 신의도에서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사건)이 무더기 발견됐다.

신안군은 6일 "최근 문화재 분포 조사과정에서 신의면 상태서리와 자실리 마을 뒷산에서 6~7세기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석곽과 석실분 70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분 50기가 발견된 상태서리 '안산' 정상에서는 높이 4m, 길이 300여 m에 달하는 테뫼식(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테를 두른 듯한 모양의 석곽) 석축산성이 확인됐다.

자실리 뒷산 골짜기에는 반경 50m 이내에 고분 20기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실분은 산 중턱에서 발견됐으며, 길이 3m의 상석과 하부의 판석 등으로 이뤄진 백제계 석실분이다. 석

실분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봉토가 씻겨 내린데다 상관 등이 노출돼 있어 대부분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근 신안군 학예연구사는 "안산에 있는 성을 중심으로 석실분이 밀집돼 있다는 것은 이 일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해상 세력이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산성과 고분의 성격규명을 위해 8월께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kwangju.co.kr



다 좋은 건축·신원지 KCC
DS건설(주) KCC·정호, 현수, 도면, 내구력
KCC형호, 시스템형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리모델링, 배관, 대리점
실리콘·방수재·접착제·테이프

품위손상 징계 檢事
실명·사유 첫 공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관보에 처음 공개됐다.

법무부는 6일자 관보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교 중인 JMS 정명석 교수의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검사 이모씨를 6월28일자로 면직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05년 9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김모씨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창원지검 백 모 검사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 피의자의 배임죄 등 피의 사건을 수사하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 정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김 모검사는 지난해 처를 폭행해 약감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여성수 성추행’ 前감독 영구 제명

○수선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구속기소된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농구단 전 감독 박명수(45)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함양식)는 “피고인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에서 엄벌해 처해 마땅하다”며 “하지만 초범인 데다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능구개 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한 점, 5천만원을 공탁해 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도 이날 법원의 선고 후 6개 프로구단 구단주의 동의를 얻어 박씨의 영구제명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 구단 사무국에 통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한 박씨는 우리은행 농구단이 미국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4월께 소속팀 선수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